

일본적 공간개념의 분석에 의한 일본 현대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by Analysis in Japanese Concept of Space

- Focused on Japanese Commercial Space -

박세정* / Park, Se-Jung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The space is formed in close connection with a human life style, and whose significance is interpreted and recognized by characteristics given in the life culture to which they belong to. The spacial concept in terms of recogn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sign of spaces. The understandings of its identity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forming the proper relation between the human beings and the space. This paper is the inquiry and the arrangement for geographical, thinking, and beauty-conscious features of Japan by the researches on documentary records in order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space as mentioned aboved. Also this paper presents the frame(system) which can draw the method of space construction and its expression and then seize and analyze the reality of space by re-arrangement for these various cultural background on the center of the relationship with Japanese spacial cognition. And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xpressive features for Japanese spacial concepts by applying this analysis frame to contemporary commercial spaces in Japan. In results this research revealed that Japanese spacial features is always in the consciousness for cognitive space on the design of space , and in the features the neutral and several layered spaces are showed in complexed and mutual connected forms. These may be the methods for the relationship establishment between human and space on the ground of unique spacial concepts which is commonly found not only in traditional spaces but also in contemporary spaces in Japan.

키워드 : 일본적 공간개념, 표현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공간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며 생활문화의 특성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되고 인식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틀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체계 즉,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들의 구성과 재생에 의해 형성된 비물질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어온 인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독자적인 공간개념과 인식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적 측면에서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실체의 파악은 인간과 공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일본의 공간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의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공간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틀(체계)을 제시하고, 이 분석틀의 적용을 통하여 현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일본적 공간개념¹⁾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디자인학박사

1)본 논문에서의 일본적 공간개념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공간을 인식하고 점유하는 방식으로, 생활사상, 미의식, 인

의 표현특성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일본의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체계가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본적 공간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형성배경이 되는 일본의 인문 지리, 사상, 미의식의 특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 고찰하였다²⁾. 또한 이러한 여러 문화적 배경을 일본적 공간개념과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일본의 공간구성의 작법과 표현 방법을 추출하고 그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공간을 구성하는 표현방법들의 상호관계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일본적 공간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틀(체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일본적 실내공간의 대표적 작품³⁾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일본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을 분석, 정리하였다.

2. 일본적 공간개념의 형성 배경

2.1. 인문 지리학적 배경

일본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풍부한 목재생산으로 통풍이 좋은 개방적인 목구조 건물이 발달하였다. 기둥과 들보가 구조재 역할을 하여 벽체는 가벼운 반고정식 형태를 취했고, 강수량이 많아 처마와 지붕물매가 깊다. 또한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가구 역시 현실 대응력이 있는 이동이 편리하고 간소한 형태를 취하거나, 건축에 편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는 자연방어의 역할을 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유입되어 온 선진대륙문화를 적절히 선택 수용하였으며⁴⁾ 일단 수입된 문화는 기존 문화와 빠르게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⁵⁾ 재해석 하고 재편집해 내는 과정을 통해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2.2. 사상적 배경

(1) 우주론적 자연관

일본에는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외연적으로 표현된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는데⁶⁾ 건너편에 실재하는 풍경을 '빌

린다'는 의미로 의식 속에 확대된 정원을 고안한 것이다. 또 자연명소나 세계관을 응축한 축경(縮景)이라는 수법은 축소되고 상징화된 초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 명상하는 조원술(庭園術)이다. 이처럼 일본의 공간은 자연을 끌어넣고 자연에 동화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했다⁷⁾. 공간 안에 자연을 자기화하며 인식 속의 또 하나의 자연인 소우주를 형성해 자연을 바라보았다.

(2) 범신론적 종교관

일본인들의 자연신앙이자 토착신앙인 신도(神道)는 종교라기 보다는 민족의 원리, 자연관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 바탕에는 인간과 신의 구별이 없고 인간이 곧 우주에 핵심이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신도의 초기 제례의식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세계관은 신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범신론적 세계관은 우주, 즉 자연을 숭배하여 건축물까지도 신격화하였다. 현실 속에서도 신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환영(幻影)의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공간을 추구하였다.

(3) 이원론적 사고관

신과 인간, 신과 물질(物質), 영계(靈界)와 물질계(物質界) 사이의 애매한 구분에서 불교 정토사상의 보급과 함께 예토(穢土)와 정토(淨土), 인간의 세계와 제불(諸佛)의 세계 등과 같이 세계를 둘로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관이 생겨나게 된다⁹⁾. 이러한 사고관에 의해 공간에서는 성(聖)과 속(俗)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장치공간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관은 물리적인 공간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인식적인 분리이며, 구분은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3. 일본인의 미의식

일본의 미의식은 선명하거나 강렬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감동이 동반된 은은한 정조를 그 기조로 하여 그 정의를 뚜렷이 제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으로 다분히 애매한 감성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 미의식의 큰 흐름을 짚어보면 헤이안(平安)시대의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われ), 중세의 유겐(幽玄), 근세의 사비(さび)와 비(わび)로 이어지고 이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면서 조금씩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며 계승 발전되었다¹⁰⁾. 그 특성은 '모노노아와레'의 비애, 한탄의 미, '유겐'의 어둠, 정적, 생략, 제거의 미, '사비'의 소박, 덧없음, 황폐의 미, '와비'의 고요, 빈곤, 결핍의 미 등으로 이러한 일본의 미의식의 전반적인 흐름

7) 黒川紀章,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p.117

8) 西和大, 穂積和夫,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占談社, 日本, 1983, p.40

9) 井上充夫, 日本建築の空間, 鹿島出版會, 日本, 1971, p.141

10) 유옥희, 日本學誌 제19권, 芭蕉의 사비 小考, 1999, p.179

문 지리학적 요건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공간에 대한 의식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2) 일본문화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까지를 중심으로 관련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3) 최근 10년간 일본 실내건축전문지 <商店建築>에 게재된 和風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4)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1999, p.32

5) 김용운, 일본인과 한국인, 뿌리 깊은 나무사, 1984, pp.186-195

6) 이진민 일본인테리어 디자인과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상관성, 월간 인테리어, 1999.

름은 불안전, 불균형 불투명, 불확정의 역설적 미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禪)사상과 함께 공간을 인식하는데도 작용되어 암시와 여정(餘情)의 미가 강조되고, 모호한 경계개념 등으로 양면적인 성향을 띠는 공간이 나타난다.

한편으로, 일본의 미의식은 끊임없이 상징화하는 작업을 통해 미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생략 제거에 의해 매우 상징적인 것만 남기고 그것이 하나의 심원(深遠)한 사상의 단면까지 보여주는 미의식이다. 이도 선(禪)사상과 부합하여 기능은 사라진 극단적인 상징성의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

3.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성 원리

3.1. 일본적 공간개념

일본적인 공간은 시공사이의 두 점 또는 두 선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이 더해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다.¹¹⁾ 공간은 하나의 물체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 전통 풍속과 관계된 것으로 서구인들이 공간을 마치 단순한 물체로 인식한 반면 일본에서의 공간은 우주를 뜻했으며, 사물의 구성 물체로 상징적 의미나 성격을 다루어 물리적인 영구성은 중요시 되지 않았다.¹²⁾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의 공간개념은 물리적 실체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확장된 인식적인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적 공간개념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과 인식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 공존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적 공간개념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을 추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일본의 공간개념의 정체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전통공간을 다룬 관련문헌과 선행연구¹³⁾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공간에 대한 유사한 설명과 정의들을 하나의 의미로 유형화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일본적 ‘공간표현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공간표현방법’은 일정한 규칙들에 의하여 통합되고 설정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규칙들을 ‘공간구성작법’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표현방법들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상기의 유형화 작업 중에 각각의 표현방법이 상위의 규범에 의하여 형성되며 관계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러한 관계를 위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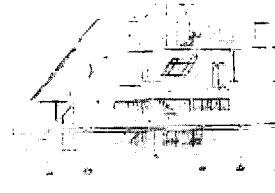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얻어진 ‘공간표현방법’과 ‘공간구성작법’을 다음의 각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1)Heinrich Engel, the Japanese House, CH. Tuttle Co, 1964, p.233
 12)Botond Bogнар, Typology of Space-Construc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Process25, p.135
 13)관련문헌으로 『住まいの文化(日本住文化研究会)』, 『日本の家』(中川武) 등과 선행 연구자료로 『建築における日本のもの(磯崎新)』, 『日本建築の空間(井上充夫)』,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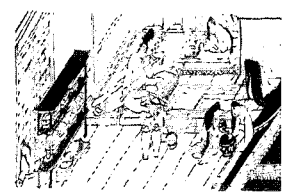
3.2. 일본적 공간개념에 의한 공간표현방법

(1) 設(しつらい 시츠라이) - 융통성, 유기적, 轉用, 규격, 단순

중세 귀족의 신덴츠크리(寢殿造)¹⁴⁾양식은 운동장 같은 넓은



<그림 1> 寢殿造의 室礼



<그림 2> 坐具, 道具로서의 畳

공간만이 있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칸막이나 도구를 설치하는 시츠라이(室礼)¹⁵⁾에 의해 사용되어졌다<그림 1>. 여기서 시츠라이란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필요에 따라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며 사용이 끝나면 본래의 장소에 돌려놓는 일본적인 공간 사용 방법을 의미한다. 공간은 계절이나 목적에 맞게 그때마다 전용(專用)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병풍등과 같은 가변적 요소로 구체화해 공간의 융통성을 높인다. 이러한 단순한 공간은 수평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내부공간을 만들어 유기적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실내 평면의 유기성, 융통성은 가구에도 영향을 끼쳐 시간대별 계절별 일상 또는 비 일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 후 수납’의 특성이 강조되어 왔다. 다른 기능들보다도 수납기능이 특별히 발달한 데에는 이와 같은 실내공간의 운용상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¹⁶⁾

타타미(畳) 역시 현재 바닥마감재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신덴츠크리에 있어서 ‘시츠라이’ 중에 하나였다. 초기 타타미는 앉거나 누울 때 커다란 방석 같은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위에 따라 배치가 변할 수 있었다<그림 2>. 이 앉는 도구가 방 전체에 깔리게 되어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이다. 타타미 한 장의 크기는 심리적인 여유가 포함된 신체 크기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에도 평면계획법의 규격수치기준으로 방의 크기, 기둥의 배치 등을 결정한다.

규격성을 가지는 타타미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시츠라이의

14)헤이안 시대 귀족주택양식으로 주인이 기거하는 건물의 침전을 중심으로 동, 서, 북쪽에 대응하는 건물들이 각기 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내에는 커다란 마루바닥 같은 원물에 침대에 해당하는 帳台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식 칸막이의 일종인 衝立, 屏風, 几帳로 구획하고 방석의 일종인 置疊, 茵에 앉았다. 이러한 室礼의 습관은 和風주택의 형식이 성립된 쇼인츠크리(書院造) 양식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근대까지 이어졌다. 쇼인츠크리는 武家の 생활상과 禪宗의 서원양식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주택양식으로 건물이 용도별로 분할되기 시작하고 만고정의 벽체로 미서기 문인 쇼지, 후스마가 사용되어 시츠라이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외에 접객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主室에 도쿄노마, 치가이나나 등 전형적인 일본적인 실내장식요소가 나타난다.
 15)일본 독자적인 실내공간 구성법 또는 사고방식으로 시츠라이 라고 부르고 室礼, 設い, 鋪設, 鋪設, 등의 글자를 사용한다. ‘室’은 interior를 ‘礼’는 coordinator 라는 의미로 방의 기능을 세분화해서 각각에 가구를 배치해 두는 서양의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6)이진민, 동양의 가구 한 일 중을 중심으로, 월간인테리어 통권155호, 1998.8, pp.114-127

융통성은 서로 상충되는듯하나 일본의 공간이 가지는 특질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設」의 공간개념은 규격성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엮어있는 것으로, 합리주의적 융통성이며 여기에는 정신적인 여유까지 포함된다.

(2) 仮(かり 카리) - 가설, 변화 새로움, 異공간, 현재성



<그림 3> 가설적 공간 假

「假」의 공간은 가설적인 공간으로 일본 공간의 가설성은 신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되었다. 새롭고 청결한 느낌에서 성성(聖性)을 느끼는 일본인에게 이 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였다¹⁷⁾.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의 교섭

을 위해 히모로기(ひもろぎ)¹⁸⁾ 야시로(社)¹⁹⁾, 이와사카(磐境) 같이 변화적이고 임시적인, 신선한 가설적 공간을 만들었다<그림 3>. 이외에도 의례를 위한 공간이나, 단순히 천을 펼쳐마든 노다테(野店)나 가부키를 위한 가설극장 시바이고야(芝居小屋) 등 일본공간에서 가설공간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가설적인 공간이란 일상속의 비일상적 이(異)공간으로 이 비 일상성은 신선함을 주고 현재성을 강조한다. 일본에 있어서 이(異)공간은 신의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신과의 의례에 가설공간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일본적인 순간적미를 강조한 '中今'이라는 사상도 이 가설공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가설공간은 인식에 의존하는 공간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設」의 공간개념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내부 공간 자체가 가설성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으며 「假」의 공간은 「設」의 공간개념에서 파생되고 심화된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囲(かこみ 카코미)- 인식적, 한정, 축소, 비일상

「囲」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무언가로 한정하고 둘러싼다는 의미이며 일본인의 모호한 경계감각과는 달리 매우 명확한 벽으로 단혀진 공간개념이다. 그러나 「囲」는 물리적인 한정만이 아닌 의식 속에 한정되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그 한정함으로 일상을 과기하는 비일상적인 관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다도(茶道)가 행해지는 다실(茶室)공간(小間, 數奇屋)²⁰⁾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출발해 점점 작아지게 되었고 대 공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밀함과 농



<그림 4> 茶室의 어프로치

밀함으로 또 다른 이질적 세계를 만들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극심한 한정은 그 공간의 크기를 넘어선 의식적인 무한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실공간은 실제적인 삶을 위한 건물이 아닌 심미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 외관은 평정하고 우아 하면서 비대칭적인 구성을 갖고 명백하고

단순한 형태를 취한다.²¹⁾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은 와비의 소박한미를 추구하며 차를 마시는 의례인 차노유(茶の湯)를 실천한다. 다실은 비일상적인 공간이지만 이는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관계를 갖는 연결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지(露地)라는 정원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그림 4>. 그런 의미에서 「囲」의 공간은 다음의 「結」의 공간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의 접대공간의 의례적 장식공간인 도쿄노마(床の間)²²⁾, 관념을 압축한 카레산스이(枯山水) 정원 역시 공간을 한정함으로써 기능은 소멸되고 의식적 공간으로만 남아 정형화 된 것이다. 즉, 축소 지향적이라는 일본에 있어 축소라는 의미는 또 다른 커다란 의식적인 공간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4) 縁(えん 엔)- 中間的, 兩義的, 모호성, 연속성, 완충, 융합

개구부가 적은 벽식 구조인 서양에 비해 일본은 개구부가 유동적이고 내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내·외부의 명쾌한 구분 없이 넓게 열린 공간은 외부로 연속해 반 외부 반 내부라는 중간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내부와 외부가 융합하는 형태로 공간이 성립하게 된다. 「縁」은 이처럼 A이면서 B이거나 A로도 B로도 쓰이지 않는 모호한 의미를 가진 경계공간을 말한다. 여기서 이 A와 B 두공간은 내부·외부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공적·사적인 영역의 의미도 포함된다. 「縁」의 대표적인 표현양식으로 전통적 공간요소인 엔가와(緣側)가 있다. 전통주택에서 방의 바깥쪽 돌레에 설치하여 복도나 출입구로써 사용하는 좁고 긴 마룻바닥인 엔가와와 외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의미에서는 외부이고 마룻바닥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내부이다<그림 5>. 이러한 내·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엔가와와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인 완충공간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연이 근경에서 원경까지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도록 하여 심리적인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토비사시(飛

17) 内田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日本, 2003, p.33
 18) 신령을 부르기 위해 청정한 장소에 상록수를 심거나 울타리를 친 곳
 19) 原義는 屋代로 '代'는 밭(田)의 측량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각으로 구획하는 의미에서부터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금줄을 두르는 것에 의해 생겨난 신을 맞이하는 가설공간이다. 후에 널리 신사를 일컫는다.
 20) 일본의 다실공간은 특유의 일본적 공간으로 차노유의 발전과 더불어 미노야마시대(1573-1614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건축적구성은 규모가 크지 않고 매우단순하고 명백한 것이 특징이다. 茶室은 스키야(數奇屋)란 말로도 쓰이는데 '스키(數奇)'라는 말은 고의적인 미완성의 비대칭적인미를 나타내며, 또 동음이의어인 '비어있음'과 '좋다'라는 뜻으로 空家, 好家を 가리킨다.

21) 윤광진, 일본현대 건축의 양식분류에 관한 연구, 연세석론, 1985, p.12
 22) 벽 안쪽에 매입하여 장식대의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장식대의 윤곽을 이루는 양쪽 기둥 중 한쪽에는 회양목 등 원목을 가공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워 장식하고 그 안쪽은 바닥을 약간 높게 만들거나 재질을 바꾸어 꽃을 놓거나 벽면에는 족자 등을 건다.

庇)²³나 도마(土間)²⁴도 내·외(内·外)와 공·사(公·私)라는 양의적(兩義的)인 경계 영역 속에 있는 공간들이다<그림 6>.

「緣」의 공간개념은 이렇게 내부와 외부로 직접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경계의식아래 내부와 외부의 연계방식으로써 두 공간을 공존시키고 연결하며 융합하는 공간개념이다.



<그림 5> 回縁양식의 緣側



<그림 6> 독립기둥과 처마에 의해 형성된 飛庇

(5) 通(とおりतो오리) - 통과, 진입, 연결, 정화, 의례, 어프로치

「通」의 공간은 「緣」의 공간개념에서 통과적인 동적인 의미가 좀 더 부각된 개념으로 공간에의 어프로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전통 일본공간에서의 통로의 의미는 발생적으로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노가타리(物語)²⁵의 구성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단편적인 공간요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성(聖)과 속(俗)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時)·공간의 정화(淨化)의 요소로서 발달하였다.

중세귀족 양식인 신덴츠클리에는 중앙에 침전을 중심으로 각 전(殿)을 와타도노(渡殿)라는 회랑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전통도시주택으로 상점겸용 주택형태인 마치야(町屋)에는 길에 면한 상점인 마세(店)의 옆에 안쪽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토오리니와(通庭)가 있다. 이 마치야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안쪽까지 연결된 긴 통로가 존재하는 것은 공통된 형태로 후에 이 공간은 마루바닥으로 개조해 복도의 형식으로 변해간다. 또 현대의 중복도형 주택에서도 보이듯 복도공간은 일본의 공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일본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통합적이고 수렴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조직화된 전체로서 공간을 파악하기 보다는 다원적이고 발산적인 파편들의 연결로서 공간을 인식한다.²⁶ 이 불연속적인 파편들은 공간에서도 애매하게 끊어져 있고 이어준다는 의미의 통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연결공간이 아닌 통과 의례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의식 속에 또 하나의 통과적인 공간을 만들게 된다. 신사 불각의 참도(參道)는 속된 공간과 신의 공간을 연결하고, 일본 다도(茶道)의 로지(露地)²⁷는 일상공간으로부터 비

23) 緣側の 차양(庇)부분은 남겨놓고 바닥을 마루가 아닌 외부상태(土間)로 놓아두어 만드는 처마 밑 공간으로 緣側보다 외부성이 강하다.

24) 건물 내에 마루를 깔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타타키(三和土)를 깔아둔 곳으로 그 바닥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농경사회에서 이웃과의 공동 생활을 위한 공적인 외부와 사적인 내부 중간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25) 이야기,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친 산문문학작품

26) Bognar Botond, (The)New Japanese architecture, 장성수 역, 영문출판사, 1991,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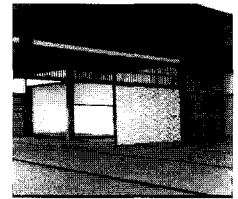
일상의 공간을 연결한다. 로지는 일상의 속세로부터 다도를 위한 성스러운 곳으로 가기위해 마음을 정속하게 하고 세속의 더러움과 일상의 잡념을 버리는 통과 의례의 관문 같은 곳이며 다실이라는 별세계로의 접근로 이다. 이처럼 「通」의 공간개념은 「緣」으로부터 파생되어 「통과」라는 개념에 의식적인 정화(淨化)의 개념이 부가되어진 개념이다.

(6) 闕(しきみ 시키미)- 境界, 인식적, 유동적, 상호관계적

일본적 공간개념 안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명확한 공간분할이라는 의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누는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원적인 사고관 에서도 보이듯이 세계를 끊임없이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闕」의 공간개념은 이러한 '나눔'이라는 경계선상에서의 의미에 관점을 두고 공간을 파악하는 것으로 강한 분리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闕(시키미)'란 본래 문의 내외 구획을 설정하기 위해 가는 문지방의 횡목으로 만약 이것이 내부와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생성하거나 소실해 버리는 인식적 경계이다.²⁸ 일본문화의 나눔의 개념인 「闕」은 항상 이러한 의식, 인식 안에서 성립되어지는 공간개념으로 현관 입구에 있는 횡목 귀틀인 아가리카마치(上がり框)나 신사의 입구에 있는 토리이(鳥居) 등이 그 좋은 예이다<그림 7>.



<그림 7> 인식적 경계인 鳥居



<그림 8> 공간의 仕切り

「闕」의 공간개념과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것이 공간간의 상호관계나 공간간의 경계형성의 장치를 의미하는 시키리(仕切り)이다. 시키리는 가볍고 얇고 동적인 경계 장치로 그 본질적인 구성과 함께 그것을 취급하는 인간의 작법을 통해 그 완전한 기능과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²⁹ 이 시키리에 이용되는 건구(建具)는 병풍 등 단순한 칸막이를 비롯하여 미닫이식의 움직이는 벽인 후스마(襖)와 쇼지(障子), 그리고 격자형태의 안이 들여다보이는 코우시(格子), 비치는 천으로 된 스타레(簾) 등이 있다.<그림 8>. 이들은 벽처럼 물리적으로 상대공간의 행위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나 암묵의 약속에 의해 확고한 경계의 의미를 획득한다. 이는 이 경계들이 가구(假構)된 의식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闕」의 공

27) 露地는 茶室에 부속되어 있는 뜰로 茶室에 이르는 작은 정원 혹은 좁은 통로를 말한다. 이 단어의 기원은 불교경전에서 나온 말로 '더럽혀지지 않은 장소' 즉 '청정한 땅'이라는 의미로 속세로부터 茶室로 인도하는 역할과 외부와 茶室 공간 구별하는 공간이다.

28) 内田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日本, 2003, p.33

29) 中川武, 日本の家, TOTO出版, 日本, 2002, p.57

간개념은 공간의 의식적인 분할에 의해 공간간의 경계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3.3. 일본적 공간개념에 의한 공간구성작법.³⁰⁾

(1) 構 (かまい 카마이)

「構」는 앞에서 서술한 「設」, 「仮」, 「囲」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법적인 공간개념이다. 「設」과 「仮」의 공간은 비어있으면서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고, 「囲」의 공간은 한정함으로써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공간의 구성 상태를 말한다. 「構」의 개념은 이들을 이루기 위한 작법원리로 오브제들의 상호 관계적인 구성을 말한다. 「設」과 「仮」, 「囲」의 공간은 이러한 오브제들의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위에 성립하고 있고 그 관계가 약간만 어긋나도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다. 일본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사물(物)과 '사물(物)사이의 관계성이 전체공간에 영향을 주어 공간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일본의 공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 쉽고, 극한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제와 오브제, 물리적인 공간과 인식적인 공간, 인간과 공간의 관계성이 그 공간의 성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즉, 「構」의 공간개념은 그 공간 안에서 미세한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구성 작법이다.

(2) 結(むすび 무스비)

「結」은 위에서 말한 「囲」, 「縁」, 「通」, 「闕」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법적인 공간개념이다. 「囲」, 「縁」, 「通」, 「闕」의 공간이 두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둘러싸고 연결하고 나누는데서 나오는 경계개념들이었다면 「結」은 이들을 구현하는 작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공간에 흐르는 공통적 맥락이기도 한 '경계를 짓다'라는 의미는 일본의 전반적인 공간구성원리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으며, 나누어 연결한다는 일본인들의 경계개념의 독특한 요소이다. 일본의 공간 경계 수법인 겿카이(結界)³¹⁾ 역시 인식·의식적인 경계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縁」의 공간의 엔가와(縁側)도 외부와 내부를 나누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闕」의 쿠후시(格子) 역시 경계는 지으나 투과하고 연결된다. 즉 「結」의 공간개념은 두 개의 공간을 막지만 물리적인 막힘이 아닌 의식적인 분리에 의해 각 영역을 독립시키는 일본의 독특한 경계개념이다.

4. 일본적 공간개념과 현대 실내공간 표현특성

4.1.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 의미와 구조

30)공간구성작법이란 질서, 규칙, 정례(定例)와 같은 의미로 공간표현 요소를 통합하고 형성하는 공통적인 질서나 규범, 규칙 등을 의미한다.

31)원래는 불교용어로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일정의 범위를 성역으로써 정한다라는 뜻에서 전이되어 공간에서는 두 개의 다른 공간의 경계에 표시를 두는 것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인 의미는 「空」과 「間」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1) 空(うつ 우츠)

「空」은 공간표현방법인 「設」, 「仮」, 「囲」를 비롯해 이들을 만들어내는 공간구성작법인 「構」를 통합한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본래「空」은 하늘(天)과 땅(地) 사이와 같이 허공으로 어디까지나 퍼져가는 모습으로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어 3차원의 실체는 아니다. 「空」은 이 일반적 의미 외에 특히 허공이라는 현상이 물건의 고정성을 보는 것을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空」이라는 개념으로 불교 도래와 함께 일본문화에 영향을 미쳐 왔다. 즉, 물건의 본성은 고정적이 아니라 가정(假定)의 모습으로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실체자성(實體自性)을 갖지 않았다' 고 하는 불교의 근본 사상의 영향이었다.³²⁾ 일본어로 우츠와(うつわ)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고 うつ(우츠)는 비어있다는 의미로 공간이 비어있으면 오히려 무언이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空」은 계절, 의례, 비일상 등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로부터 일본의 공간이 단순화 된 것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은 장식적인 표현을 피하고 도구를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의해 표현되어졌다.³³⁾ 그리고 이러한 빈 그릇과 같은 공간에 의식적인 부분을 추가시켜 또 하나의 실체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즉, 「空」은 변화 가능한 물리적인 빈 공간과 의식적인 빈 공간을 동시에 만들어 내어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의식의 심화과정이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空」의 공간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2) 間(ま 마)

「間」는 공간표현방법인 「縁」, 「通」, 「闕」, 「囲」를 비롯해 이들을 만들어 내는 공간구성작법인 「結」을 통합한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일본적 언어개념으로 「間」란 '무언가 사이에 끼여진 틈'을 의미하며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間」는 공간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사용용도에 따라 '茶の間' '佛間', 바닥재료에 따라 '土間' '板の間'로, 넓이를 나타내는 '六量の間', '廣間' 또 공간간의 위계성을 나타내는 '次の間', '上の間'등으로 표현된다. 또 「間」은 길이의 단위도 되고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나타내는 間(けん 켄)의 단위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間」라는 공간개념은 하나의 장(場)으로서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건축공간자체를 「間」 즉, 자연과 자연사이, 혹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끼여있는 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축적인 공간이 외부와 확고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다. 또한 공간개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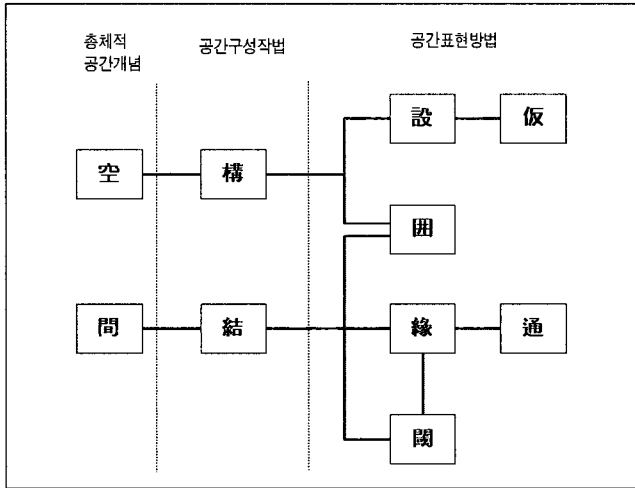
32)宮川映二, 문석창 역, 建築的 空間, 기문당, 1982, pp.143-144

33)内田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日本, 2003, p.33

씨의 「間」은 연결을 위한 나눔으로 앞서 말한 연결하는 경계, 둘러싸인 경계, 구획의 경계가 사실은 공간의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역설적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즉, 「間」은 틈과 사이라는 나눔으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3)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

이상의 일본적 공간표현방법의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를 구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

일본의 공간개념은 <그림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空」과 「間」이라는 총체적인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성작법과 그 구체적인 공간표현방법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간표현방법에 의해 형성되어진 세부적인 공간구성원리가 궁극적으로는 「空」과 「間」이라는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의 공간에서 「空」과 「間」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혼재되어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空」은 공간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間」은 공간의 나눔에 대한 것으로, 일본적인 공간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일본의 공간 관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간의 구축적 개념에 관한 견해이기도 하다. 모든 공간은 그 존재상태(균질 혹은 비 균질, 장식 혹은 비 장식, 가설 혹은 구축)와 나눔(분할 혹은 구획)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역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空」과 「間」의 성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空」의 개념을 풀어나가는 작법이 되는 「構」는 바로 일본적인 공간작법이 되고 이러한 관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오브제에 의한 공간이 아닌 공간 안에 있는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공간의 특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어있고 모듈화 된 공간표현인 「設」과 임시적이고 가설적인 「仮」의 공간표현, 한정되고 축소되어 있는 「間」의 공간표현은 이러한 「構」의 작법

에 의해 컨트롤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間」의 공간개념을 풀어가는 작법은 바로 「結」의 작법이다. 「間」의 공간개념이 '공간에 사이가 존재함으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일본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나누지만 연결되어 하나의 스펙트럼과 같은 불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내는 「結」의 공간개념에 의해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한정된 격리공간인 「間」, 반 외부·반 내부의 모호한 공간인 「緣」, 연결적인 공간이 실제화되어있는 「通」, 그리고 공간의 가설적인 구획인 「闕」등은 이러한 연결이라는 「結」의 작법이 항상 염두되어 있는 공간표현방법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間」의 공간은 「構」의 공간작법과 「結」의 공간작법을 이어주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공간표현방법으로 「空」과 「間」의 공간개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일본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공간의 표현특성분석

전절까지 살펴본 일본적 공간개념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일본 실내공간디자인에도 적용되고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절에서 도출한 공간개념의 분석틀(구조도)을 바탕으로 현대의 일본 실내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일본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일본적인 공간개념이 현대의 실내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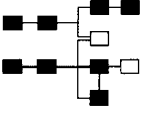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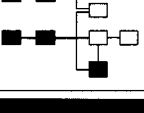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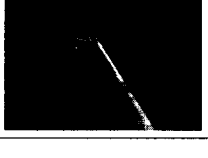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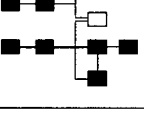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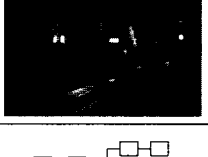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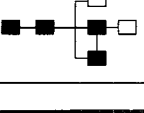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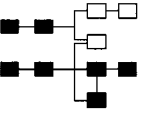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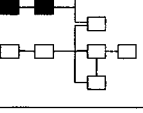
분석을 위한 사례는 일본 내에서 화풍(和風)디자인으로 디자인전문지³⁴⁾에 의해 소개된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제약된 장소에 공간연출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업공간으로 한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습관이나 관습 등 다양한 인간의 행태가 공간 속에 표출되는 식음공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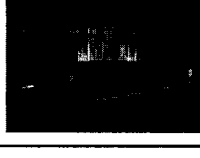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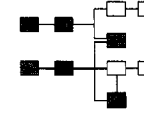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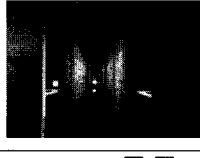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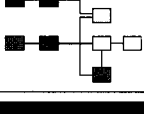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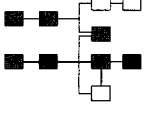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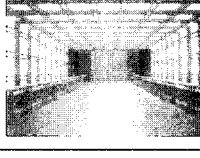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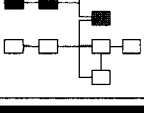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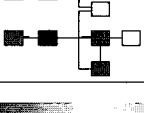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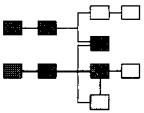
일본적 공간개념은 구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간의 표현방법과 그에 의해 구현된 공간구성작법의 다층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표 1>과 같이 각 사례를 분석, 고찰하였다.

<표 1> 현대 실내공간에서 표현특성

작 품 명	작 품	표 현 특 성
	공간 개념 구조도	
Japanese restaurant <魚心> Saburo Yasuhara		[緣] 외부에 만든 대기실과 내부의 사적 공간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을 존재하게 하여 두 공간을 완충적으로 연결시키는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闕] 내부의 벽은 외부와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나 하부를 개방하여 중간정원과 의식적인 연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정원부분은 외부(공공영역)와 시각적 개방관계를 형성하나 바닥테턴과 천정스크린 대나무 오브제 등의 조합을 통하여 공(私)영역의 구분을 암시한다.

34) 최근 10년간 일본 실내건축전문지 <商店建築>에 게재된 和風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작 품 명	작 품	
	공간 개념 구조도	표 현 특 성
Japanese Dining Bar <橙家> Yukio Hashimoto	 	[緋] 홀에서 좌석으로 올라오는 부분의 단을 높이고 중간영역을 만들어 경계를 구분하고, [靑] 좌석간의 구분은 천장의 단절된 조명라인과 반투과적인 스크린에 의해 물리적인 측면보다 인식적인 경계에 의해 내부공간의 영역성을 표현하고 있다. [靑] 공간은 스크린, 테이블의 명확한 사각형태에 의해 내부공간의 영역을 한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靑] 넓은 빈 공간에 가변적인 스크린에 의해 융통적인 공간 공간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Self Cooking Barbecue <横浜市場> Michio Kinoshita	 	[靑·靑] 유동적인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의 파티션으로 공간을 다층적으로 구획하여 수평으로 무한히 연속되는 시각적 연속성을 가지게 한다. [靑]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가진 투명한 벽은 공간을 구획하면서 연결하는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즉, 공간은 물리적인 구획을 하면서도 투과되는 재질감을 통하여 막혀진 공간에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인식의 확장을 표현하고 있다.
Japanese restaurant <こんぶや> Ichiro Sato	 	[靑] 강한 깊이감이 강조 되는 어프로치 공간을 설정하고 통로의 끝에 초 보니와(坪庭) 건물사이의 작은 정원을 배치하였다. 이는 통과례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일상에서 비 일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인식적 전환을 부여하고바닥의 선조명은 통로의 깊이감을 강조하여 내적세계로의 통과, 체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緋] 내부와 통로의 중간영역으로 정원을 두고 있다. [靑] 정원과 통로와의 경계는 천장에 설치된 格子에 의해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Japanese restaurant <こんぶや> Ichiro Sato	 	[靑] 홀과 내부좌식공간은 우선 마루의 단차이로 경계를 표현하고 이를 다시 마루의 경계선 안쪽에 시선이 투과되는 스크린 두어 다시 한번 경계를 나누면서 연결하고 있다. [緋] 여기에 두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엔가와의 같은 중간영역이 형성된다. 또한 이는 마루의 단차에 의한 명확한 물리적 경계표현을 시각적으로 투과되는 벽에 의해 외부와 내부공간의 경계를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한다.
Japanese restaurant <ゆれ寝蓆> Yutaka Yanagisawa	 	[靑] 외부로부터 내부로 연결되어지는 입구의 경계가 단차와 포석, 중간벽, 카마치(귀틀), 노렌(칸막이천)에 의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緋] 동시에 그 사이에 모호한 중간영역이 형성된다. 한정된 다실공간을 상징하는 중간벽에 다실의 窓(下地窓)과 다실입구의 손씻는(手水鉢)과 같은 외부적요소를 두어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 [靑] 경계의 나눔에 있어서도 역시 카마치, 노렌으로 유연하고 인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靑] 입구를 통과하면서 다실의 로지와 같이 또 다른 세계로의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Izakaya <上々> Yusaku Kaneshiro	 	[靑] 벽에 수납 기능을 부여하고 그 일부에 장식적인 조명의 삽입과 벽의 아래쪽에서 돌출되어진 좌석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의 건축적 요소인 벽이 가구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표현이다. 하나의 모듈에 의해 벽을 나누고 이에 따라 장식공간과 수납공간, 그리고 가구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한 공간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Bar <雪月花>	 	[靑] 염색한 마사(麻糸)를 늘어뜨려 공간을 둘러싸도록 하여 별도의 개실(個室)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개실 공간은 외부의 공간과는 다른 밀도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靑] 개실공간과 외부 공간간의 경계의 표현을 물리적인 벽이 아닌 조명과 마사의 막으로 표현함으로 빛과 아시아의 면적요소에 의한 공간의 한정성을 강조하여 두 공간의 명확한 경계를 의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투과적인 아시아의 면적 구성은 조명의 빛과 함께 부드럽고 모호한 인식적 경계를 창출하여 두 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아닌 의식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Hisanobu Tsujimura	 	[靑·靑] 이동 가능한 투과성 스크린에 의해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임시적인 장치에 의한 유동적이며 유기적인 공간관계를 형성하는 공간표현이다. 여기서 이 가변적 스크린은 두 공간을 잇거나 단절시켜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靑] 가설적인 물리적 실체에 의해 분리된 공간은 그 투과성과 임시적 장치의 가변성에 의해 구분되면서도 의식적인 경계에 의한 연속성을 갖게 된다.
Japanese restaurant <きなり> Hideki Shigeta	 	[靑] 다실의 로지(露地)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내부에 바닥의 모래나 벽 등 외부의 요소를 표현하여 내의 공간의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 두 공간을 융화시키고 있다. [靑] 공간의 구획은 개방적이며 외부와 내부의 상호관계가 맺어지도록 열려있어 공간을 나누면서 연결하고 있다. [靑] 입구는 별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례적인 정화의 개념이 더해져 내적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인식적인 공간감을 준다. [靑] 전체적으로 공간은 한정되면서도 선과 면, 개방과 폐쇄의 공간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Hotel Grand Hyatt Tokyo <神前式場> Super Potato 外	 	[靑·靑] 격자 형태로 규격화 된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까지 꼭 짜여진 틀(장치적 요소)에 의하여 공간을 감싸 물리적인 한정과 의식적인 한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한정감은 비밀상적인 관념의 공간을 창출하며, 간접조명의 빛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외부와 격리된 異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예식장이라는 비밀상적 공간의 기능과도 부합된다.
Dining bar <月の藏> Manabu Yanagiya	 	[靑·靑] 포석의 변형인 바닥의 패턴화된 돌은 원래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부와 외부, 외부와 내부라는 공간이동의 기점으로 공간의 구획과 연결이 동시에 형성되는 공간이다. 내 외부라는 이질적 공간의 중간에 위치한 경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靑·靑] 돌이 깔려있는 부분에 투과되는 이중스크린 역시 공간을 구획하면서 중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인식적 경계를 연출하고 있다.
Dining bar <匱> Hiroyuki Michushita	 	[靑·靑] 출입구가 비스듬히 벽 쪽으로 파여져 내외부가 모호한 공간을 형성시키고 도로(공공영역)에 면한 출입구 앞에 완충적이고 양의(兩義)적인 공간 만듦으로써 내외의 물리적인 구분이 아닌 인식적 경계의 구분을 표현하고 있다. [靑] 파사드에 형성되어진 이 중간영역은 도쿄노마와 같이 빛과 화분이라는 요소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상에서 일탈한 비밀상적이고 의식속의 경계를 표현하여 공간적인 한정을 넘어 인식의 경계를 표출하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표 1>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현대 일본 상업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본적 공간개념의 다양한 표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적 공간개념은 다양한 공간표현방법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층적으로 나타나며 공간의 인식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일본적 공간개념에 의한 표현특성은 크게 인식적, 중성적, 다층적 공간표현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개념과 공간 표현특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를 통한 일본적 공간 표현특성

일본 실내 공간 표현사례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			일본 공간 표현특성
	표현특성	구성작법	총체적 개념	
비움에 의한 단순화	設	構	空	인식적
한정에 의한 상징화	圍	構	空	
암시적 경계공간의 설정	闕緣	結	間	
체험을 통한 여정의 미	通	結	間	
모호한 중간영역 설정	緣通	結	間	
가구의 건축화	設	構	空	중성적
가변적 장치	仮	構	空	
경계의 중첩과 분할	緣闕	結	間	다층적
위계적 공간 형성	圍	結	間	
다양한 시퀀스	通	結	間	

5. 결론

이상으로 일본적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개념의 내면적 의미의 고찰로부터 「設」, 「仮」, 「圍」, 「緣」, 「通」, 「闕」의 공간표현방법과 「構」, 「結」의 공간 작법, 그리고 총체적인 공간개념으로서의 「空」과 「間」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들의 지리적 배경, 사상, 미의식등과 함께 일본적 공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현대의 실내공간에서도 그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인식적(認知的) 공간표현

일본의 공간은 의식과 공간이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현대 일본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통한 공간표현의 특성이 보인다. 이는 극한의 단순화된 공간으로 표현되거나 상징적이고 모호한 경계표현 혹은 여정의 미를 살린 체험적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식적 공간에서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공간을 의식하는 장치가 공간 속에서 상징적으로 실재화(實在化) 되어 있거나 일본인들만의 생활감각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성적(中性的) 공간표현

일본적 공간은 대립되는 두 성질의 어느 쪽도 아닌 중간성질

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이는 공간의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중간적인 공간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점이나, 일본가구가 수납기능의 강조와 더불어 건축공간의 구축적 요소와 결합하는 가구의 건축화현상, 그리고 빈 공간에 가변적 구조와 장치가 더해져 상황에 맞게 공간이 변화되는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본적 공간의 특성은 이렇듯 공간이 내포하는 중성적인 성격에 의해 인식의 무한한 공간적 확장성을 표출하고 있다.

(3) 다층적(多層的) 공간표현

일본적 공간은 공간적 경계의 모호함과 함께 다수의 경계에 의해 구성된 다층적 경계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간은 모호한 경계에 의한 미세하게 분할된 서로 다른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성격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고 확립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경계적공간은 인식적인 공간장치나 다양한 장면적 시퀀스의 변화에 의해 동일한 공간 안에서도 무수히 다른 성격의 공간을 병치 또는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일본적 공간표현의 특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space)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시·공(時·空)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 항상 인식적인 공간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에 중성적이며 다층적인 공간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하며 나타나는데 있다. 이는 전통공간뿐만이 아닌 현대의 일본적 공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일본적인 공간표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 日本住文化研究會, 住まいの文化, 學藝出版社(日本), 1999
3. 商店建築, 和の表情, 商店建築社(日本), 2004
4. 伊藤ていじ, 日本 デザイン論, 鹿島出版會(日本), 1971
5. 磯崎新, 建築における日本的なもの, 新潮社(日本), 2003
6. 鈴木茂文, 현대일본주거읽기, 이현희 역, 국제출판사, 1999
7. 유길동, 노(能)에 나타난 미의식연구, 중대 박론, 2002
8. 김왕직·이상해, 일본주택 和室의 형성과정과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역사학회논문집 18권 11호, 2002

<접수 : 2004. 10. 30>